



14일 캠프지인 팜으로 출국하는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12일 무등경기장 육상장 트랙에서 러닝을 하며 광주에서의 훈련을 마무리했다.

“PGA 무대 첫발 꿈만같다”

내일 하와이서 데뷔전

김비오, 대선배 최경주와 연습라운드

강성훈, 센든·레시먼 등과 함께 샷 점검

“처음에는 부탁을 드려도 될까 망설였어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무대에 선 김비오(21·넥슨)는 12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연습 라운드를 앞두고 대선배 최경주(41·SK텔레콤)를 파트너로 삼았다.

대회조직위원회가 연습 라운드에 나설 동반 플레이어를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파트너를 구할 수 있었지만 김비오는 한참을 망설였다. 최경주에게 같이 연습을 하자고 부탁했다. 최경주는 흔쾌히 후배의 부탁을 들어줬고 김비오는 설레는 마음으로 최경주와 단둘이 대회 코스에서 샷을 날렸다.

김비오는 “최경주 선배가 특히 벅커샷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 함께 치면서 아직도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감히 세세한 부분까지 물어보지는 못했다”며 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신기하고 흥분된다”며 데뷔전을 앞둔 소감을 밝힌 김비오는 14일 오전 8시30분 10번홀에서 티샷을 날린다.

김비오의 캐디는 중학교 때 같은 골프장에서 연습했던 3살 위 친구 킴 실버맨이다.

김비오는 “베테랑 캐디보다는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필요하다”며 “정식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시즌 초반 몇몇 대회는 실버맨과 함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TV에서만 보던 선수들과 연습 라운드를 하다니 꿈만 같네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데뷔전을 치르는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표정이었다.

강성훈은 12일(이하 한국시간) 와이알레이 골프장에서 존 센든, 네이션 그린(이상 미국), 마크 레시먼(호주)과 연습 라운드를 함께 하며 14일 1라운드를 위한 샷을 점검했다.

강성훈은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즐겁게 연습 라운드를 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만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수차례 PGA 투어에 도전하다 작년 12월 퀴리파잉스쿨에 합격해 출전권을 따낸 강성훈은 대회 코스를 둘러본 뒤 “그린 주변에 러프가 많다. 정확하게 그대를 공략하지 않으면 힘든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심하게 휘어지는 도그렉 홀들이 많아 페어웨이를 지켜야만 그린 위에 볼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선 땅에서 데뷔전을 치르지만 국내 대회에서도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친형 강성도(31)가 캐디를 맡아 든든하다.

강성훈은 “국내 대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뷔 시즌에도 친형과 호흡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해진 마운드, 치열한 ‘생존 경쟁’

서재응·윤석민·양현중·용병 로페즈 선발 예약
신용운·김진우 가세... 코칭스태프 즐거운 비명



스프링캠프에서 치열한 생존싸움을 벌이게 될 KIA 타이거즈 투수들이 국내에서의 마지막 워밍업을 했다.

투수 최고참 이대진을 필두로 한 KIA 투수진이 12일 무등경기장 야구장과 육상장에서 출국에 앞서 마지막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선수들은 13일 하루 휴식을 취한 뒤 14일 1차 캠프지인 팜으로 출국한다.

마무리캠프와 자율훈련을 통해 몸 만들기에 집중했던 선수들에게 본격적인 ‘마운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내달 4일부터 당장 연습경기가 시작되면서 2011 주전 경쟁은 더욱 빠르게 전개될 예정이다.

윤석민·양현중과 함께 ‘토종 선발진’을 짠

임지계 될 서재응은 “마무리캠프에서부터 경쟁이 이뤄졌고 김진우, 신용운 등이 가세하면서 선수들 스스로 경쟁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의욕들도 높아서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2011년 준비가 수월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범현 감독은 12명의 투수로 엔트리를 꾸릴 방침이다. 토종 투수들과 함께 용병이 선발 5자리를 예약한 가운데 나머지 7자리를 놓고 생존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마무리캠프 MVP로 꼽히는 곡정철·손영민이 일단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고, 이적 후 KIA맨으로 탈바꿈한 박성호도 마무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돌아온 신용운과 김진우가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년 특급 마무리로 활약한 유동훈도 지난 시즌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노련미의 이대진과 함께 조태수·이상화·차정민도 경험을 앞세워 마운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2년차 좌완 임기준·심동섭도 1군 진입을 위한 테스트를 받게 되며, 루키 홍건희와 박기철은 생애 첫 스프링캠프를 기다리고 있다.

마운드 경쟁이 가열되면서 코칭스태프는 즐거운 고민에 빠졌다.

조범현 감독은 “마무리캠프를 하면서 야구에 대한 의식 변화들도 있었고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좋다. 스프링캠프에서도 좋은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며 “시즌 초반에는 따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집단 마무리 체제를 운영하면서 마운드 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1회 학강초등학교교장배 야구대회 내일 개막

제1회 학강초등학교교장배(교장 서정권) 야구대회가 14일부터 16일까지 학강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주최팀인 광주 학강초를 비롯해 강원 소양초, 안산 삼일초, 군산 신흥초, 인천 창영초, 인천 동막초 6개 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투게 된다. 대회는 14일 오전 10시 학강초와 소

양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며, 초대 우승팀은 16일 오전 10시에 진행 되는 결승전에서 가려진다.

학강초 최태영 감독은 “전국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하고 어린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오늘 ‘나눔데이 행사’

KIA타이거즈가 13일 패밀리 레스토랑 빙스와 함께 ‘나눔데이 행사’를 갖는다.

KIA가 13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광주 빙스 광천점에서 광주·전남지역 소년소녀가장과 CJ도너스 캠프 공부방 60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신년파티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최희섭, 김상현, 이현근 등 3명의 선수가 ‘쿠기 및 파스타 만들기 이벤트’에 참가해 학생들에게 직접 쿠기와 파스타를 만들어 제공한다. /김여울기자 wool@

마라토너 지영준

올해 한국신

2시간 6분대 뚝다

지난해 광주우 아시안게임 남자 마라톤에서 감격스런 월계관을 쓴 지영준(30·코오롱)이 11년 만에 한국신기록 수립을 향해 운동화 끈을 조여왔다. 지난 4일부터 제주도에

서 전지훈련 중인 지영준은 눈발이 흠날리는 제주 시내 도로와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금은 지구력과 스피드를 키우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속도전’을 대비 중이다.

아시안게임에서 무더위를 뚫고 2시간11분 11초라는 관측은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낸 지영준은 3월20일 광화문-잠실종합운동장 코스에서 진행될 2011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6분대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2009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작성한 개인 최고기록(2시간28분30초)은 물론 은

퇴한 이봉수가 2000년 도쿄국제마라톤에서 세운 한국기록(2시간17분20초)을 넘어서는 새 기록이다. 지영준의 훈련을 돕는 정만화(51) 원주 상지여고 감독은 12일 “남들은 웃을지 몰라도 2시간17분대 초반, 2시간6분대 진입을 목표로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감독은 “목표는 8월 대구 세계선수권 대회다. 무더운 날씨에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2시간8분대를 메달권이라고 볼 때 그 기록을 내려면 선선한 날씨에서 2시간6분대는 뛰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1 Wedding Festival

1,2,3월 웨딩을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신양파크호텔 만의 선물에 예비신랑,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Special Rate

뷔페 ₩ 29,000, ₩ 33,000

양식 ₩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Shin Yang Park Hotel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신양파크호텔" 객실 패키지
신양파크 호텔 객실 패키지
스탠다드 객실(1실) + 사우나 1인 ₩ 90,000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1인 + 사우나 1인 ₩ 100,000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2인 + 사우나 2인 ₩ 110,000
행사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1년 2월 28일 상담 및 문의 | 062)228-8000, 221-4101~3

클래식 침실, 클래식 거실, 식탁, 안티크식탁·좌탁·거실·침실, 소파·카우지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 062-382-0022
문화전당점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062-226-7567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주) 홍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엔틱,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소매 하고 있으며 국산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영업에서 직수입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